

##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정진석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제1저자)

강보선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교신저자)

- \* 이 논문은 제77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2.11.12.)에서 발표한 것을 보완한 것임.
- \*\* 2019년도 강원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I. 머리말
- II. 연구 방법
- III. 연구 결과
- IV. 시사점

## I. 머리말

통일 담론은 ‘통일에 관한 국가적·개인적 철학의 총체로서, 통일에 대한 규범과 가치를 생산하는 인식론적 배경’으로, 주로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통일 과정과 방식에 대한 이론적 틀 등으로 구성된다. 통일 담론은 통일 전략, 통일 정책과 함께 통일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그 중요성은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한편으로, 통일 담론은 통일 추진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구상인 통일 전략의 핵심 토대이다. 통일 전략은 통일 담론에 기대어 그 추진을 위한 권위를 확보하고 정당성을 드러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통일 담론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가용 자원과 수단, 즉, 통일 정책의 기준이 된다. 통일 정책은 통일 담론을 기준으로 정책 실현을 위한 권력을 구조화하고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다(통일연구원, 2015: 2-3).

이러한 통일 담론과 국어교육의 관계를 모색할 때는 크게 두 방향의 사유가 가능하다. 첫째, 통일 담론을 바탕으로 통일 관련 국어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다. 이때 통일 담론은 국어교육

의 외부 요인으로, 통일 관련 국어교육의 전략적 토대와 정책적 기준으로 상정된다. 실제로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분단 이래 통일 담론을 주도한 주체는 정부와 정치권이었고 학계는 정부와 정치권, 또는 시민 단체의 통일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거나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박명규, 2008: 87; 홍석률, 2021: 208). 국어교육 또한 1989년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1994년의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등 정부 주도의 통일 담론에 기반하여 통일 관련 교육을 설계하고 실천하고 있다. 통일 담론이 당대 사회의 상황과 조응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변화하고 분화하는 통일 담론에 대한 탐색은 국어교육이 현실 감각을 갖추면서 통일교육의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국어교육의 통일 담론에 주목하면서 그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이때, 통일 담론은 국어교육 내부에서 이론화한 담론 중 하나로, 분단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국어교육이 인식하고 숙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 1988년의 남·월북 작가 해금 조치, 1989년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표 등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기초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어교육학계 또한 1989년 4월 “남북한 국어교육정책 교류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토론회”(한국국어교육학회)를 개최하고 남북한의 국어 교과서와 국어교육 정책을 비교하는 등 국어교육의 통일 담론을 본격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하였다.<sup>1)</sup> 통일 담론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이들 분야의 영향 관계와 상호작용은 통일 담론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거점이 된다(통일교육원, 2021: 6). 이런 점에서 통일 관련 국어교육의 이론과

1) 이날(4월 22일)의 대토론회를 마치며 국어교육학과 국어국문학 관련 6개 학회의 회장단은 ‘남북한 언어동질성 회복과 국어교육정책 통일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교부 장관 등 6개 정부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낸다. 건의문에 서명한 학회장은 이용백(한국국어교육연구회장), 진태하(한국국어교육학회장), 남광우(한국어문교육연구회장), 황폐강(국어국문학회장), 이기문(국어학회장·국어연구소 소장), 이현복(대한음성학회장) 등이다.

실천에 대한 성찰은 국어교육 내 통일 담론의 지형도를 그리면서 그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는 작업이자, 다른 분야와의 대화적 관계를 맺으며 ‘더 나은 통일’을 지향할 계기가 된다.

이 연구는 후자의 맥락에서 통일 담론과 국어교육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의 과제 또한 중요한 연구 주제인 점은 분명하다. 다만, 후자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이해 없이 외부의 통일 담론을 추수하듯 탐색하는 것은 자칫 통일에 대한 국어교육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그간의 축적된 성과와 정립된 방법론을 주변화하는 등 국어교육의 안목과 성과를 왜소하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어교육에서 통일교육의 문제를 다룬 일체의 연구를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로 개념화하면서 체계적 문헌 고찰에 기대어 이 방면의 연구 동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sup>2)</sup> 이를 통해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하면서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확인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언할 것이다.

## II.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그 추이와 특성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literature review)을 선택하였다. 체

- 
- 2) 통일교육의 문제는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북한과 통일의 관점을 기준으로 통일교육의 문제를 승공,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안보, 탈분단, 다문화 이해 및 갈등 해결, 북한 사회의 이해로 세분화하거나(함택영·구갑우·김용복·이항규, 2003: 53), 통일교육의 인식적 쟁점을 기준으로 통일의 당위성, 북한의 인식, 남북한 차이의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김상무, 2008: 21-30).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후자의 논의에 따라 ‘통일 관련’의 범주를 통일, 남북한, 북한으로 설정하되 문헌 고찰의 결과는 전자의 논의를 참고하여 폭넓게 설정하고자 한다.

체계적 문헌 고찰의 목적은 특정한 분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특정 연구의 동향을 살피는 데 있어 최신의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적합한 연구 결과를 최대한 종합한 후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문헌 고찰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비뚤림(bias)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뚤림은 체계적 문헌 고찰이 연구자 단독으로 진행될 때, 고찰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때, 고찰의 대상이 부적절할 때,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할 연구를 포함하지 않거나, 비뚤림을 포함한 연구처럼 포함하지 말아야 할 연구를 포함할 때 발생하기 쉽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방법론의 지침은 연구의 기획, 연구 계획서의 작성부터 자료의 분석과 결론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두 명 이상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표준화된 절차에 맞춰 고찰의 핵심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연구를 사전에 정해진 포함 기준을 바탕으로 수집하되, 중복되거나 연구 영역이 맞지 않거나 연구 결과가 고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배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별한다(김수영·박동아·서현주·신승수·이수정·이민 외, 2020: 2-5).

체계적 문헌 고찰은 보건 정책의 의사결정이나 임상 시험의 결과 종합을 위한 근거 기반 보건 의료의 방법론으로서 개발되었지만, 경영학, 교육학, 심리학, 경영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어 교육에서도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거나(김은성·김호정·남가영·박재현, 2014) 관련 연구 분야의 성과와 추이,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이인화·정진석, 2014) 이 방법론을 도입한 이래로 대부분 후자의 맥락에서 꾸준히 활용하고 있다(권이은·이수진·송정윤, 2021; 김라연·최건아·박소희·황인지·장봉기, 2021; 김해인, 2016; 김혜연, 2017; 김혜연, 2022; 박유현·이인화, 2022; 백정이, 2021; 안상희, 2020; 진용성, 2018). 이 연구는 보건 의료 분야의 지침서인 김수영·박지은·서현주·서혜선·손희정·신채민 외(2011)와 김수영 외(2020)를 준용하되, 동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두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체계적 문헌 고찰의 절차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체계적 문헌 고찰의 절차와 방법

## 1. 핵심 질문의 설정

체계적 문헌 고찰의 첫 단계는 핵심 질문(key question)의 설정이다. 핵심 질문은 연구의 목표를 질문의 형태로 기술한 것으로, 어떤 연구를 포함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핵심 질문이 갖춰야 할 실현 가능성, 관련성, 참신성, 흥미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동향을 다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핵심 질문을 김수영 외(2020: 9)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의 일반적 동향과 관련하여,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시기, 대상, 영역의 분포는 어떠한가?

둘째, 연구 내용의 동향과 관련하여,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주제별 특성과 영역별 추이는 어떠한가?

셋째, 연구 방법의 동향과 관련하여,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가 적용한 연구 방법의 분포와 특성은 어떠한가?

## 2. 문헌 검색

체계적 문헌 고찰은 기본적으로 핵심 질문과 관련된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정밀도를 합리적으로 유지하면서 민감도가 높은 검색을 선호한다(김수영 외, 2020: 38). 이를 위해 검색할 문헌의 발행 기간, 출판 형식, 검색어의 조합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 연구는 국어교육 내에서 통일 관련 연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핵심 질문과 관련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첫째, 발행 기간은 제한하지 않고, 둘째, 검색어는 동의어, 유의어,

관련어 등으로 다양화하되, 셋째, 출판 형식은 회색 문헌은 포함하지 않고 학술지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국어교육 분야의 체계적 문헌 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교보문고 스콜라(scholar.kyobobook.co.kr), DBpia(www.dbpia.co.kr), KISS(kiss.kstudy.com), RISS(www.riss.kr) 등을 선정하였다.<sup>3)</sup>

문헌 검색은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하였다. 검색어의 목록은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민감도 높은 문헌 검색을 위해 두 층위로 나눠 중층적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층위는 연구 주제의 핵심어 중 하나인 ‘국어교육’과 관련된 영역 층위로, ‘국어교육’을 핵심어로 하되, 국어교육의 전통적 영역 구분을 준용하여, 관련어로 ‘화법교육’, ‘독서교육’, ‘작문교육’, ‘문법교육’, ‘어휘교육’, ‘문학교육’을 선정하고, 관련어의 동의어 및 유의어인 ‘듣기말하기교육’, ‘읽기교육’, ‘쓰기교육’도 검색어로 포함하였다. 두 번째 층위는 연구 주제의 또 다른 핵심어인 ‘통일’과 관련된 범주 층위로, ‘통일’을 핵심어로 하되, 통일교육의 범주 분류를 준용하여(김상무, 2008), 관련어로 ‘남북한’, ‘북한’을 선정하였고, ‘남북한’의 유의어인 ‘남북’도 검색어로 포함

3)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의 기본적인 제한점은 선별된 문헌이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 모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4개의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방대한 문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 중 전자화되지 못한 일부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출판 형식을 학술지의 논문으로 한정함으로써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사에서 유의미한 학위 논문, 단행본, 정부·기관 보고서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은 체계적 문헌 연구에서 자료 선별의 핵심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된 광범위한 문헌을 누락 없이 빠르게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출판 형식을 학술지 논문으로 한정한 것은 자료 분석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이다. 현재의 문헌 검색 방법으로 출판 형식을 보고서, 단행본, 학위 논문으로 확장하면 1차 검색 문헌은 12,000건을 넘어선다. 이에 출판 형식을 학술지 논문으로 한정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에도 1차 검색 문헌은 5,897건, 최종 선별 문헌은 178건으로, 국어교육학계의 체계적 문헌 연구 중 가장 많은 자료를 다룬 편에 속한다. 학위 논문, 단행본, 정부·기관 보고서, 특허,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지 못한 연구 자료에 대한 문헌 연구는 이 연구의 후속 과제로 기약한다.



하였다.

이들 검색어는 네 곳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전체 검색’과 ‘결과 내 재검색’, ‘학술 논문’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검색에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전체 검색으로 ‘국어교육’ 층위의 검색어로 ‘문학교육’을 입력하고, 결과 내 재검색을 적용하여 전체 검색으로 ‘통일’ 층위의 검색어로 ‘남북한’을 입력한 후, 자료 유형에서 학술 논문을 선택하여 ‘문학교육’ AND ‘남북한’ 검색을 완료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표 1>과 같이 반복하였고, 그 결과 모두 5,897개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표 1〉 문헌 검색의 내용과 흐름

①	국어교육 → 통일	국어교육 → 남북한	국어교육 → 남북	국어교육 → 북한
②	화법교육 → 통일	화법교육 → 남북한	화법교육 → 남북	화법교육 → 북한
	듣기말하기교육 → 통일	듣기말하기교육 → 남북한	듣기말하기교육 → 남북	듣기말하기교육 → 북한
③	독서교육 → 통일	독서교육 → 남북한	독서교육 → 남북	독서교육 → 북한
	읽기교육 → 통일	읽기교육 → 남북한	읽기교육 → 남북	읽기교육 → 북한
④	작문교육 → 통일	작문교육 → 남북한	작문교육 → 남북	작문교육 → 북한
	쓰기교육 → 통일	쓰기교육 → 남북한	쓰기교육 → 남북	쓰기교육 → 북한
⑤	문법교육 → 통일	문법교육 → 남북한	문법교육 → 남북	문법교육 → 북한
	어휘교육 → 통일	어휘교육 → 남북한	어휘교육 → 남북	어휘교육 → 북한
⑥	문학교육 → 통일	문학교육 → 남북한	문학교육 → 남북	문학교육 → 북한

### 3. 분석 문헌의 선별

분석 문헌의 선별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중복 문헌 제외 단계이다. 이 연구는 민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헌 검색의 결과에는 데이터베이스 간, 검색어 조합 간 중복 문헌이 다

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중복된 문헌인 4,329편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 단계에서 총 5,897편 중 1,568편을 선별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주제 관련성 평가 기반 문헌 선별 단계로, 앞선 단계에서 선별된 문헌의 제목과 초록에 근거하여 ‘통일 관련 여부’와 ‘국어교육 분야 여부’를 선별 기준으로 삼아 그 관련성이 명시적인 연구를 선별하고자 하였다. 이에 ‘통일 관련 여부’를 적용하여 ‘문법 용어의 통일적 기술, 교육 내용의 통일성, 작품 구조의 통일성, 글의 통일성, 논문 양식의 통일’ 등 한반도의 남북통일과 무관한 문헌을 제외하였다. 또한, ‘국어교육 분야 여부’를 적용하여 ‘역사교육, 독일교육, 외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국어국문학, 통일교육’ 등과 같이 국어교육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문헌도 제외하였다. 여기에는 학술대회 자료집의 발표문, 토론문, 잡지의 기고문 등 문헌 검색으로 걸리지 않았던 회색 문헌도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단계에서 1,568편 중 212편을 선별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주제 긴밀성 평가 기반 문헌 선별 단계로, 앞선 단계에서 선별된 문헌의 초록과 전문에 근거하여 연구 주제와의 긴밀성이 높은 연구를 선별하고자 하였다. 이에 통일 관련 국어교육을 표방하지만, 분석의 초점이나 결과는 북한 교육의 일반적 특성, 북한의 언어 규범이나 작품에 대한 이해, 남북한 언어의 차이 등에 한정된 사례, 북한의 국어과 교육강령에 대한 분석이나 남북한 국어 교과서의 비교 등을 포함하지만, 연구의 초점이나 결과가 통일 관련 국어교육에 해당하지 않거나 넘어서는 경우 등 연구 주제와의 긴밀성이 낮은 32편을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이 단계에서 180편이 선별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질 평가 기반 문헌 선별 단계로, 앞선 단계에서 선별된 문헌의 전문에 근거하여 연구 방법의 적합성, 연구 자료의 적절성, 연구 내용의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연구의 질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80편의 문헌과 관련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방법을 선택했는지, 연구 방법에 적합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는지, 연구의 결과가 충실한

지 등을 연구자 2인이 독립적으로 검토한 후 2인 모두 한 건 이상의 기준을 현저하게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2편의 문헌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78편의 문헌이 분석 대상으로 선별되었다.

#### 4. 자료 분석

분석 자료로 선정된 178편의 문헌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고찰 범주의 설정이다. 이를 위해 앞서 밝힌 핵심 질문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발행 연도, 연구 대상, 연구 영역,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자료 등 총 여섯 가지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둘째, 범주별 분류 기준을 도출하였다. 분석 범주 중 발행 연도, 연구 대상, 연구 영역은 범주의 특성에 기반하여 연역적으로 분류 내용을 도출하였다. 반면,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자료는 구체적 사례에 기반하여 그 범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납적으로 분류 내용을 도출하였다. 범주별 분류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범주별 분류 기준과 내용

범주	분류 기준	분류 내용
발행 연도	수집된 연구의 발표 시기	연 단위로 분류
연구 대상	분석 자료나 연구 참여자	일반, 초중등, 초등, 중등, 대학, 성인
연구 영역	국어교육의 영역 구분	국어교육 일반, 화법교육, 독서교육, 작문교육, 문법교육, 문학교육
연구 주제	연구의 목적과 내용	교육 개관, 통일 대비, 북한이탈주민, 교육 언어, 갈래별 접근, 단위별 접근, 유형별 접근
연구 방법	연구의 활용 분야	기초 연구(기술), 기초 연구(탐색), 개발 연구, 정책 연구
	자료의 접근 방식	개념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합 연구
연구 자료	자료의 유형	교육강령, 교과서, 교육 지침서, 잡지, 학술서, 작품, 어문 규범

셋째,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문헌별 분석 양식을 제작한 후 연구자 2인이 독립적으로 각각의 문헌에 대해 범주별 분류 내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178편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자 2인은 분석 결과를 공유하면서 연구자 간 차이를 확인하였고,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문헌의 전문을 함께 조회하였으며, 협의를 통해 분석 결과의 차이를 조정하였다. 범주별 분류 내용을 적용하며 각각의 문헌을 분석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문헌별 분석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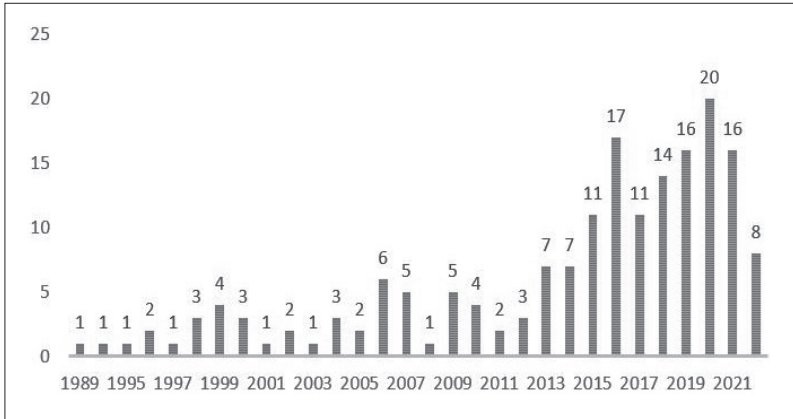
저자	발행	대상	영역	주제
강보선 외	2017	초등	문법교육	교육 개관
세부 주제	방법론(목적)	방법론(방식)	자료	기타
체제	기초 연구 (기술)	질적 연구(내용분석)	교육강령(2013)	남북한 비교

넷째, 문헌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서 발행 연도, 연구 대상, 연구 영역, 연구 주제, 연구 방법의 추이와 그 특성을 각각 파악한 후,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연구 시기

지금까지의 통일 관련 국어교육 논문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도별 논문 수

문헌 목록의 첫 번째 논문은 전수태(1989)로, 1989년 4월 22일의 “남북한 국어교육정책 교류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이 시기의 전후로 남·월북 작가 해금 조치(1988.7.19.)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표(1989.9.11.)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초창기는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향한 사회적 열망과 정책 기조의 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계 전반의 통일 관련 연구 흐름(김석향, 2019 : 3)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이러한 영향 관계, 즉, 통일을 향한 남북한의 역사적 사건과 정책이 국어교육 연구를 견인하거나 추동하는 현상은 이후 연구의 뚜렷한 경향으로 지속되지는 못했다.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89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는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편수는 연당 5편 안팎에 머물렀다. 1994년과 2011년에 있었던 북한 지도자의 사망, 2000년과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건이 통일 관련 연구를 촉발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 추이가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6년 전후로, 2015년에 11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래 현재까지 해마다 10편 이상 관련 연구가 축적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3년에 북한에서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국어’(소학교, 초급중학교)와 ‘국어문학’(고급중학교) 교과서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점, 이들 자료를 2016년에 국내 기관이 입수하면서 여러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 역량을 집중한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에서는 북한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북한의 최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국내 입수가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분기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학교급을 기준으로 분석 자료를 분류하고 발행 연도별 추이를 살폈다. 학교급은 초등, 중등, 대학, 성인으로 나누되, 초등과 중등을 함께 다루는 연구는 초중등으로, 학교급이 특정되지 않은 연구는 일반으로 묶었다. 발행 연대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로 나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대상별 연구 추이

단위: 개수(%)

	1980	1990	2000	2010	2020	총계
일반		4	1	10	3	18(10.1)
초중등		5	13	28	18	64(35.7)
초등	1		3	17	11	32(18.4)
중등		3	12	29	11	55(30.7)
대학				5	1	6(3.4)
성인				3		3(1.7)
총계	1	12	29	92	44	178(100.0)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급과 중등학교급을 포함하여 절대적으로 초·중등학교급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 비중이 매우 낮다.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라 하더라도 탈북 대학생이나 북한이탈주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는 소수 있지만 일반 대학생이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계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연구 대상별 동향을 세분하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학교급 연구는 대부분 남북한 국어교육을 비교하거나, 비교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국어교육을 교육과정 및 교과서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연구이다.

남북한 국어교육 비교 연구는 비교의 중심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남북한의 국어교육을 대등하게 비교한 연구(강보선·김진숙·박수련, 2016; 강보선·권순희·주재우·정진석·김진숙, 2017; 권순희·강보선·주재우·정진석, 2017; 이관규, 2022; 정진석·강보선·주재우·권순희, 2017; 주재우·권순희·강보선·정진석, 2017 등)과 북한의 국어교육을 상세히 분석한 연구(강보선, 2018; 권순희, 2018; 김양희, 2016; 김정우, 2015; 박기범, 2020; 박소은, 2020; 소강춘, 2000; 정진석, 2018; 주재우, 2018; 최홍원, 2019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어교육 통합 연구도 연구의 중심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통합 방향을 거시적으로 제안한 연구(김중신, 2014; 박갑수, 1998; 이삼형, 2015; 이인제, 2005; 전수태, 2010 등)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통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연구(강보선, 2020 등; 고정희·김종철·구본관·조진수·

---

4)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학술적 연구는 드물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남북의 언어 차이를 이해시키거나 북한어를 소개하는 책들(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2017, 2019, 2020; 양영철, 2018; 전영선, 2015; 정종남, 2001; 한성우·설송아, 2019)은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차경미·민병곤 외, 2015; 김태호·신헌재, 2022; 심영택, 2000; 오현아, 2019; 이상일, 2020, 이인제, 2005; 이성우·신중진, 2021; 진선희, 2020; 최미숙, 2020; 한명숙, 2017 등)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통합 연구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국어교육의 목표, 내용 등에서 존재하는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남북의 국어교육을 통합하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제시해 왔다. 이는 남북한 국어교육 통합 연구가 기본적으로 다양한 통일 담론 중 민족주의 통일 담론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오영창, 2021; 장지혜, 2016; 최홍원, 2019ㄴ), 다문화교육 관점(김미혜, 2009) 등 민족주의 외의 관점에서 남북한 국어교육의 통합을 접근하기도 하였다.

둘째, 초중등학교급 연구 중 일부는 탈북 학생을 대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sup>5)</sup> 탈북 학생은 국어 과목을 학습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았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탈북 학생 대상 국어교육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김영란, 2013), 탈북 청소년 학습자의 문식성(오현아, 2020), 탈북 청소년의 문학 능력(오영창, 2021), 쓰기 학습에 대한 탈북 중학생의 요구 분석(김부경·김대희, 2014, 2016),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글쓰기 교육(임현열, 2014), 탈북 학생의 쓰기 양상(백목원·권순희, 2016), 북한 이탈 초등학생의 국어 능력(정경화·권순희, 2016), 북한 이탈 고등학생의 국어 능력(백목원·권순희, 2016), 탈북 청소년 대상 교재 개발(김정은, 2018; 원진숙, 2015) 등이 연구되었다.

셋째, 초중등학교급 이후 대상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정착 과정에서 남북의 언어 차

5) '탈북 학생'은 선행 연구에서 '탈북 청소년', '북한 이탈 학생', '북한 이탈 청소년' 등으로도 불린다. '탈북 학생'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한 만큼 누구를 탈북 학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탈북 학생'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는 이은주·이순영(2021)을 참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을 돕는 ‘하나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을 하지만 교육 기간이 짧고 하나원 퇴소 이후에는 국어를 학습할 기회와 여건이 부족하여 언어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국어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교육적 필요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대상 국어교육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교육(강보선, 2013 ㄱ),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교육과정(김혜윤·한정범·조연주, 2019), 북한이탈주민 대상 언어 교육(권순희, 2014 ㄱ; 2014 ㄴ; 배준영, 2013),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문금현, 2007), 북한이탈주민 교재(우인혜, 2018) 등에서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는 주로 ‘어휘’와 ‘화법’ 그리고 ‘교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 대학생에 주목한 연구도 일부 존재한다. 탈북 대학생의 언어 문식성(오현아·김지혜, 2019 ㄱ; 오현아·김지혜, 2019 ㄴ), 북한의 대학 글쓰기(김수연, 2015) 등에서 국어교육 관점에서 탈북 대학생의 언어 문제를 다루었으나, 탈북 대학생이 남북한의 언어 및 언어문화 차이로 인하여 대학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강보선·변정훈, 2016)에 비하여 이들에 관한 관심과 연구 결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3. 연구 영역

연구 영역과 관련하여, 국어교육의 영역 구분을 기준으로 영역별로 분석 자료를 분류하고 발행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영역은 국어교육 일반과 함께 화법교육, 독서교육, 작문교육, 문법교육, 문학교육으로 나뉘었고 발행 연대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로 나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영역별 연구 추이

단위: 개수(%)

	1980	1990	2000	2010	2020	총계
국어교육 일반	1	10	10	36	18	75(42.1)
화법교육		1	1	3		5(2.8)
독서교육			1	2		3(1.7)
작문교육				7		7(3.9)
문법교육		1	5	15	9	30(16.9)
문학교육			12	29	17	58(32.6)
총계	1	12	29	92	44	178(100.0)

통일 관련 국어교육은 남북한의 초등학교급 국어 교과서를 비교하는 논의(전수태, 1989)를 비롯한 국어교육 일반론 차원에서 시작하였고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하위 영역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였다. 전체적 비중의 측면에서, 국어교육 일반에 관한 모색(75건, 42.1%)과 하위 영역의 구체적 논의(103건, 57.9%)가 일정한 균형을 이루며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하위 영역의 영역별 연구의 비중에는 편차가 크다. 연구 성과가 가장 많이 축적된 영역은 문학교육이다. 북한 문학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수령형상’의 교과서 구현 양상을 살핀 논의(김양희, 2004-)로 시작한 문학교육은 발행 연대별로 하위 영역의 연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꾸준히 증가하며 영역별 논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법교육도 연구 성과를 지속하여 축적하고 있는 영역이다. 북한의 학교문법 내용을 분석한 논의(이관규, 1999)로 시작한 이 영역은 발행 연대마다 하위 영역의 연구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화법교육, 독서교육, 작문교육 분야의 연구 비중은 미미하다. 북한의 화법교육과 독서교육을 개관한 논의(이주섭, 2000; 이인제·민병곤·이재기, 2002; 임철성, 1996)로 하위 영역 논의의 선편을 쥐고 있지만 세 영역의 연구

물을 합해도 2000년대 2편, 2010년 12편으로 연구 성과의 축적이 더딘 편이다. 특히 국어교육 일반, 문학교육, 문법교육과는 대조적으로 2020년 이후에도 이들 분야의 연구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통일 관련 국어교육의 중심이 점차 일반론에서 영역별 논의로 옮겨가고 있지만, 그 관심이 영역별 전반으로 확산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 4. 연구 주제

연구 주제는 기본적으로 분석 자료를 검토하면서 귀납적으로 도출한 후 발행 연대별로 묶어 그 추이를 살폈다. 구체적으로, 분류된 분석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면서 핵심 구문을 파악한 후 내용의 유사성과 계층성을 고려하며 핵심 구문을 수정하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세부 주제를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주제가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국어교육 일반, 문학교육, 문법교육, 의사소통교육 등으로 영역을 나눠 분석 자료를 분류하였고 발행 연도별 추이도 함께 살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교육 일반의 연구 주제는 크게 북한 국어교육의 개관, 통일 대비 국어교육, 북한이탈주민, 북한 국어교육의 언어 등 4가지이다.

〈표 6〉 국어교육 일반에서 연대에 따른 주제별 분류

		80·90	2000	2010	2020
교육 개관	체제	전수태(1989), 최현섭(1993), 박인기(1995), 박갑수(1998), 윤희원(1999)	소강춘(2000), 문무영·김태훈 (2001), 허재영(2002), 김양희(2003), 김양희(2004ㄱ)	김양희(2016), 강보선·김진숙·박수련(2016), 권순희(2018), 주재우(2018), 이향근(2018), 진용성·차해나(2018), 변경가·권순희(2019), 최홍원(2019ㄴ)	김태호(2020), 이관규(2022)
	교육사	정주리(1997)	이동배(2009)		이관규(2021)
	사상 교양			엄인영(2019)	김윤정(2020), 엄인영(2020)

		80·90	2000	2010	2020
통일 대비	방향· 과제	박영목·이인재 (1998), 최현섭(1999)	이인제(2005)	전수태(2010), 김중신(2014), 민현식(2015), 이삼형(2015), 서현석(2016), 장지혜(2016), 한명숙(2016), 한명숙(2017)	강보선(2020ㄱ), 한명숙(2020), 오현아(2021)
	기획· 개발		심영택(2000)	고정희 외(2015)	최미숙(2020), 강보선(2020ㄴ), 진용성·김병수 (2020), 김태호(2022), 김태호·신현재 (2022ㄴ), 진용성·김병수 (2022)
북한 이탈 주민	실태 파악			김남미(2011), 배준영(2013), 김영란(2013), 권순희(2014ㄴ), 백목원·권순희(2016), 정경화·권순희(2016), 안하나(2018), 오현아·김지혜(2019ㄱ), 오현아·김지혜(2019ㄴ)	오현아(2020), 이은주·이순영 (2021)
	개발· 개선			임현열(2014), 원진숙(2015), 우인혜(2018), 김혜윤 외 (2019)	
교육 언어	교과서 어휘	김희진(1996), 이주행(1998), 민병곤(1999)	이성연·정옥란 (2006), 이성연(2007)	강보선(2013ㄴ), 구영산(2015), 김서형(2018)	정혜현·진용성 (2021)
	교과 용어			전은진·신종진(2017)	이성우·신종진 (2021)

북한 국어교육의 개관은 주로 북한의 교과서, 교육강령, 교육 지침서, 잡지 및 학술서 등을 바탕으로, 단독으로 또는 남한의 자료와 비교하면서 북한 국어교육의 체제, 역사, 정치사상교양 등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체제의 경우, 1980·90년대에는 남북한 국어 교과서(전수태, 1989), 북한 국어교육 이론(최현섭, 1993), 남북한 국어교육 연구(박인기, 1995) 등 교과서뿐만 아니라 국어교육 이론, 국어교육 연구처럼 현재보다 세분화된 주

제를 논의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를 연구 성과의 축적에 따른 연구 주제의 분화로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북한 국어교육과 관련된 자료 확보가 미비하면서 언어 규범, 교과서, 선행 연구 정도의 한정된 자료로 각각 제한된 주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한 국어교육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연구에서 여러 자료에 근거하여 북한 국어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자리를 잡게 된다. 이 밖에 북한 국어교육의 역사, 북한 국어교육의 사상교양적 특성 등도 논의의 비중은 작지만, 북한 국어교육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통일 대비 국어교육은 1990년대와 2000년대는 각각 2편 정도로 미비했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연구 성과가 빠르게 축적되는 주제이다. 이 주제는 개인 연구보다는 공동 연구에서 파생된 연구들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대학, 학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통일을 대비할 목적으로 국어교육 정책,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등과 관련된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연구 결과 중 일부가 학술 논문으로 출판된 경우가 많은 것이다(고정희·김종철·구본관·조진수·차경미·민병곤 외, 201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통일대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997; 이인제·최미숙·송현정·이재기·민병곤·박삼서, 2000; 인천교육대학교 통일대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996).

북한이탈주민은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주제보다 그 출발은 늦은 편이다.<sup>6)</sup> 하지만 2010년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일 만큼 단기간에 연구의 성과가 축적된 주제이기도 하다. 이 주제는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언어생활의 어려움, 그들의 언어 능력을 파악하는 논의와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 교과서, 교재, 수업 방안을 개발하고 보완하는

6) 분석 자료에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 탈북 청소년, 탈북 학생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법률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한다.

논의로 크게 나뉘는 가운데 이들 주제의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이은주·이순영, 2021)가 최근 제출된 점도 눈에 띈다.

이 밖에 북한 국어 교과서의 어휘, 북한 국어 교과서의 용어 등 북한 국어 교육의 언어를 남한과 비교하는 연구도 그 비중은 작지만, 초기부터 꾸준하게 연구된 주제이다.

둘째, 문학교육 분야의 연구 주제는 북한 문학교육의 개관, 북한 문학교육의 갈래별 접근, 통일 대비 문학교육, 북한이탈주민 등 4가지이다.

〈표 7〉 문학교육 분야에서 연대에 따른 주제별 분류

		2000	2010	2020
교육 개관	체제	이영미(2007ㄱ)	임옥규(2012), 정진석(2018), 박기범(2018), 최홍원(2019ㄷ), 박기범(2019)	
	교육사		이영미(2012)	
	사상 교양	김양희(2004ㄴ), 이영미(2007ㄴ)	홍지선(2012), 임인화·정재찬(2015)	
갈래별 접근	현대 문학	김양희(2005), 김양희(2006), 김미혜(2009), 황규수(2009),	조경덕(2013), 이영미(2014), 김정우(2015), 최창현(2019), 이경화(2019)	박기범(2020), 김영애(2020), 정재림(2021), 이경화·김정우(2021)
	고전 문학	이상일(2006), 한규석(2006), 김문태(2008)	최홍원(2013), 조규익(2017)	이루리(2020), 곽아람(2021), 이창희(2021), 오춘지(2022), 최창현(2022)
	아동 문학	이영미(2006)	이영미(2010ㄱ), 이영미(2010ㄴ), 진선희(2016), 박금숙(2016), 김태호(2017)	방은수(2021)

		2000	2010	2020
통일 대비	이념		임인화(2016), 김미영(2016), 최홍원(2019ㄱ)	
	개발· 제재	유성호(2006)	주재우(2015), 남경우(2017)	이상일(2020), 진선희(2020)
			김미영·유리(2015), 양정임(2018), 임인화(2019)	이동일(2020), 김은정(2020), 하채현(2021), 임인화(2021)
북한이탈주민				오영창(2021)

북한 문학교육의 개관은, 앞서 살핀 북한 국어교육의 개관과 유사하게, 북한 국어교육의 체제, 역사, 정치사상교양적 특성으로 세분화된다. 주목할 점은 다른 영역과 대비하여, 북한 관련 문학교육에 관한 연구 초기부터 정치사상교양적 특성을 다룬 연구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문학교육이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의 양성이라는 북한 교육의 목적 달성에 있어 국어교육 내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위상과 관련이 깊다. 이후 2013 개정 교육강령과 그에 따른 교과서가 입수되고 소개됨에 따라 북한 문학교육의 현 체제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갈래별 접근은 북한 문학교육 연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별적 주제이다. 현대문학, 고전문학, 고전시가, 현대시, 현대소설 등 시대와 갈래에 따른 전통적 분류를 중심으로 북한 문학교육의 면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아동문학이 하위 주제로서 꾸준히 논의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정치사상적 교양과 정서적 교양을 위해 아동문학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소학교뿐만 아니라 초급중학교까지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북한 문학교육의 특성을 주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통일 대비 문학교육은 국어교육 일반과 함께 2010년을 기점으로 연구 성과가 빠르게 축적된 주제이다. 교육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이념 수준

의 논의가 많고 교육 내용의 개발에서 제재 선정의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은 문학교육 영역의 특징이다. 이념 모색의 경우, 통일의 당위성을 담보하는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분단체제 극복, 열린 민족주의,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휴머니즘 등을 상보적 이념으로 제안하고 있다. 제재 선정의 경우, 남북한의 이질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작품이라는 인식 아래 제재 선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의 차이나 분단 체제, 통일의 문제를 사유하는 데 적합한 주제 의식이나 제재의 범주를 발굴하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은 2020년대에 제출된, 탈북 청소년의 문학 능력에 대한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을 다룬 한 편의 논문(오영창, 2021)이 전부이다. 국어교육 일반이나 문법교육, 작문교육 등 다른 영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비중 있게 논의되는 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학교육의 이러한 저조한 관심과 성과는 특기할 만하다.

셋째, 문법교육 분야의 연구 세부 주제는 북한 문법교육의 개관, 북한 문법교육의 언어 단위별 접근, 통일 대비 문법교육, 북한이탈주민 등 4가지이다.

〈표 8〉 문법교육 분야에서 연대에 따른 주제별 분류

		1990·2000	2010	2020
교육 개관	체제	이관규(1999), 정혜승(2004), 허재영(2007)	이관규(2016), 최영란(2016), 강보선 외(2017), 강보선(2018)	
	교육사		최영란(2010)	
언어 단위	음운		이향근(2017)	정혜현(2020), 이규범(2022)
	단어		강보선(2017)	박소은(2020), 박소은(2021)
	규범		정경화·권순희(2019)	임상수(2020)



		1990·2000	2010	2020
통일 대비	남한 교육	강보선(2009), 홍종선(2009)	강보선(2011), 홍경화(2014), 김정선(2015), 강보선(2016)	
	개발· 교재		박종관(2016) 오현아(2019)	강보선(2020ㄱ), 강보선(2021), 엄인영·서현정· 권순희(2021), 변영수(2022)
북한이탈주민		문금현(2007)	강보선(2013ㄱ), 김정은(2018)	

북한 문법교육의 개관은 북한의 교과서와 교육강령을 중심으로 교수 지침서, 잡지 등을 참고하며 문법교육의 체제를 살피는 연구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문화어학습』이라는 북한 잡지를 통시적으로 고찰한 연구(최영란, 2010)가 눈에 띈다. 북한 문법교육과 관련된 사설, 강령, 지침, 경험담 등 다양한 글들이 『문화어학습』에 수록된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이러한 잡지 연구는 북한 문법교육의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그 이해의 폭을 의도된 교육에서 실천된 교육으로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 문법교육에 대한 단위별 접근은 그 시작은 2010년대 후반으로 늦지만, 그 성과를 빠르게 축적하고 있는 주제이다. 그 계기는 2013 개정 교육강령과 그에 따른 교과서로, 이들 자료의 입수와 함께 시작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 문법 단위별 북한의 교육 내용을 남한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그 특성을 부각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현재까지는 음운, 단어, 규범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통일 대비 문법교육은 문법교육 영역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이다. 영역 내 연구 비중이 가장 높은 주제라는 점도 그렇지만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그 성격이 성찰적이라는 점도 차별적이다. 이는 남북한의 언어 차이와 관련된 성취기준이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제시된 이래, 통일 시대의 국

어를 지향하는 성취기준이 제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남북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살피고 통일 시대의 국어를 위해 노력하는 교육 내용이 모두 문법 영역의 요소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문법교육 영역은 이들 성취기준이 교과서로 실행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 지점을 확인하고 제언하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문법교육의 특성으로 국한되지 않고 국어교육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통일 대비 문법 교재의 개발도 통일 대비 문법교육의 하위 주제로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어휘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용 어휘의 선정 및 어휘 학습의 방안은 북한이탈주민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도 핵심어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지원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문법 교육의 기획에서 최우선 과제를 어휘교육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넷째, 의사소통교육 분야의 연구 주제는 북한 의사소통교육의 개관, 북한 의사소통교육의 유형별 접근, 북한이탈주민 등 3가지이다.

〈표 9〉 의사소통교육 분야에서 연대에 따른 주제별 분류

	1990·2000	2010
교육 개관	임철성(1996), 이주섭(2000), 이인제 외(2002)	김수연(2015), 권순희 외(2017), 주재우 외(2017), 정진석 외(2017), 김윤정·권순희(2018), 주재우(2018), 이민형(2019)
유형별 접근		김해정(2013)
북한이탈 주민		김부경·김대회(2014), 김부경·김대회(2016), 백목원·변경가·정경화·권순희(2016)

이중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주제는 북한 의사소통교육의 개관이다. 2000년을 전후로, 교육강령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화법교육과 독서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세 편의 연구가 제출된 이래 잠잠하던 논의는 북한의 2013 교육강령이 소개된 2017년부터 작문교육까지 범위를 넓혀 연구의 성

과를 다시 축적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해당 논의가 북한 의사소통교육의 유형별 접근 등 세부 요소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산된 것은 아니다. 광고와 뉴스 등의 담화를 화용적으로 분석하면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김혜정, 2013)가 예외적으로 있을 뿐이다.

통일 관련 국어교육의 주요 주제인 북한이탈주민과 통일 대비 교육 또한 의사소통교육 영역에서는 그 관심과 성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전자의 경우, 작문교육 영역에서 북한 이탈 학습자의 쓰기 양상과 요구 사항을 조사하는 등 북한 이탈 학습자의 역량을 진단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있다. 후자의 경우, 북한 의사소통교육을 개관하는 연구에서 시사점의 형태로 통일 대비 교육의 방향을 일부 제시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연구로 볼만한 연구는 아직 찾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통일 관련 국어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데 화법교육과 독서교육 영역이 선편을 쥐고 있다는 점과 대조된다. 2000년 전후의 연구(이인제 외, 2002; 이주섭, 2000; 임칠성, 1996)를 통해 논의의 범위를 일반론에서 영역별 논의로 확산하는 것을 주도했지만, 연구 주제를 넓히면서 그 성과를 축적하지는 못한 것이다. 이는 아쉬움을 넘어 해석과 분석이 필요한 현상이다.

## 5.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석 자료를 검토하면서 연구 방법의 종류를 귀납적으로 도출하되 국어교육 연구 방법에 관한 논의(천경록, 2014)를 참고하여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방법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연구 방법의 범주를 ‘연구의 목적 및 활용’과 ‘연구 자료의 종류’라는 두 층위로 나눠 설정하였다.

연구의 목적 및 활용 층위는 연구의 관심사와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기준으로 범주를 나누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상을 기술하거나 양상을 분석하는 ‘기초 연구’, 교과서, 교육과정, 수업 등을 설계하고 구안하며 개선하는

‘개발 연구’, 정책을 제안하거나 수립과 실행 과정을 분석하며 그 효과를 평가하는 ‘정책 연구’로 나뉜다. 여기에서는 기초 연구를 복한 국어교육의 체재 등을 파악하려는 기술적 기초 연구와 현실 파악을 통해 교육 방향을 모색하거나 교육적 과제까지 제시하는 탐색적 기초 연구로 나뉘, 크게, 기초 연구(기술), 기초 연구(탐색), 개발 연구, 정책 연구로 나뉘었다.

한편, 연구 자료의 종류 층위는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자료의 성격을 기준으로 범주를 나누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기초하지 않고 기존의 철학이나 이론 등에 기대거나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개념 연구’와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결과를 도출하는 경험 연구로 나뉜다. 그리고 후자는 다시 질적 연구, 양적 연구, 그리고 이 두 연구 방법을 통합한 혼합 연구로 나뉜다. 이를 준용하여 여기에서는 연구 자료의 종류를 기준으로 연구 방법을 개념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합 연구로 나뉘었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연구 방법에 따른 분류

		개념 연구	경험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합 연구
기 초 연 구	기 술	박인기(1995), 민현식(2015), 김미영(2016), 서현석(2016), 임인화(2016), 장지혜(2016), 이투리(2020)	전수태(1989), 최현섭(1993), 김희진(1996), 임철성(1996), 정주리(1997), 이주행(1998), 윤희원(1999), 이관규(1999), 소강춘(2000), 이주섭(2000), 문무영·김태훈(2001), 이인제 외(2002), 허재영(2002), 김양희(2003), 김양희(2004ㄱ), 김양희(2004ㄴ), 정혜승(2004), 김양희(2005), 김양희(2006), 유성호(2006), 이상일(2006), 이영미(2006), 한규석(2006), 이영미(2007ㄱ), 이영미(2007ㄴ), 허재영(2007), 김문태(2008), 김미혜(2009), 이동배(2009), 홍중선(2009), 황규수(2009), 이영미(2010ㄱ), 이영미(2010ㄴ), 김남미(2011), 이영미(2012),	민병곤(1999), 이성연(2007), 이성연·정옥란(2006), 김영란(2013), 김부경·김대희(2014), 구영산(2015), 김부경·김대희(2016), 백목원·권순희(2016), 백목원 외(2016), 정경화·권순희(2016), 김혜운 외(2019), 정혜현·진용성(2021)	최영란(2010) 임현열(2014), 임인화·정재찬(2015), 하채현(2021)

		개념 연구	경험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합 연구
기 초 연 구	기 술		임옥규(2012), 홍지선(2012), 강보선(2013ㄴ), 조경덕(2013), 최홍원(2013), 권순희(2014ㄱ), 권순희(2014ㄴ), 이영미(2014), 홍경화(2014), 김수연(2015), 김미영·유리(2015), 김정선(2015), 김정우(2015), 강보선·김진숙·박수련(2016), 김양희(2016), 박금숙(2016), 이관규(2016), 진선희(2016), 최영란(2016), 강보선(2017), 강보선 외(2017), 권순희 외(2017), 전은진·신종진(2017), 정진석 외(2017), 주재우 외(2017), 김태호(2017), 남경우(2017), 이항근(2017), 조규익(2017), 강보선(2018), 권순희(2018), 김서형(2018), 김정은(2018), 안한나(2018), 우인혜(2018), 이항근(2018), 정진석(2018), 주재우(2018ㄱ), 주재우(2018ㄴ), 김윤정·권순희(2018), 진용성·차해나(2018), 이경화(2019), 박기범(2019), 엄인영(2019), 오현아(2019), 오현아·김지혜(2019ㄱ), 오현아·김지혜(2019ㄴ), 정경화·권순희(2019), 변경가·권순희(2019), 이만형(2019), 임인화(2019), 진선희(2019), 최창현(2019), 최홍원(2019ㄱ), 최홍원(2019ㄴ), 김영애(2020), 김윤정(2020), 김은정(2020), 김태호(2020), 박기범(2020), 박소은(2020), 엄인영(2020), 오현아(2020), 정혜현(2020), 박소은(2021), 방은수(2021), 이관규(2021), 이경화·김정우(2021), 이성우·신종진(2021), 이창희(2021), 정재림(2021), 변영수(2022), 오춘지(2022), 이관규(2022), 이규범(2022), 진용성·김병수(2022), 최창현(2022)		

		개념 연구	경험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합 연구
기초 연구	탐색	전수태(2010), 김중신(2014), 이삼형(2015), 강보선(2016), 한명숙(2016), 강보선(2020ㄷ), 임상수(2020), 한명숙(2020), 오영창(2021)	박갑수(1998), 박영목·이인제(1998), 문금현(2007), 강보선(2009), 강보선(2011), 강보선(2013ㄱ), 김혜정(2013), 배준영(2013), 주재우(2015), 양정임(2018), 최홍원(2019ㄷ), 이동일(2020), 오현아(2021), 이은주·이순영(2021), 임인화(2021)		
		한명숙(2017), 강보선(2020ㄴ), 이상일(2020), 진선희(2020), 최미숙(2020), 김태호(2022)	심영택(2000), 이인제(2005), 원진숙(2015), 박종관(2016), 강보선(2020ㄱ), 진용성·김병수(2020), 강보선(2021), 엄인영 외(2021), 김태호·신현재(2022)		고정희 외(2015)
정책 연구			최현섭(1999)		

연구 목적 및 활용의 층위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연구 방법은 기초 연구(161건, 90.4%)이다. 통일 관련 국어교육은 연구 초기부터 북한 국어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양상을 분석하는 기술적 기초 연구(137건, 77.0%)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이질성 대처, 통일 대비의 과제를 위한 교육적 방향 및 방안을 제안하는 탐색적 기초 연구(24건, 13.5%)도 적지 않다. 한편, 개발 연구는 전체적인 비중은 적지만(16건, 9.0%), 2020년을 기점으로 그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연구 방법이다. 특히 학회,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한 ‘남북한 초·중·고등학교 국어교육 통합’(서울대학교), ‘남북한 통합 공통국어’(국어교육학회),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국어과 교육과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통일국어교육연구회) 등의 연구들이 이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면, 정책 연구에 관한 관심은 미비하여 연구 초창기에 제출된 통일 대비 국어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1건(0.6%)이 있을 뿐이다.

연구 자료의 종류 층위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139건, 78.1%)이다. 이 중에서도 남북한의 교과서, 교육강령, 교육 지침서, 잡지 및 학술서, 작품 등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의도를 추론하면서 북한 국어교육의 이해를 도모하는 질적 내용 분석이 대부분이다(127건, 71.3%).<sup>7)</sup> 반면,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경험, 교육적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논의나 이들을 위한 교재, 통일 대비 교과서와 수업 활동 등의 개발 사례를 분석한 논의 등에 적용되고 있는 면담 연구(6건, 33.7%)와 사례 연구(6건, 33.7%)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개념 연구는 통일 대비 국어교육의 이념과 방향을 모색하고 쟁점과 과제를 점검하는 연구에서 활용 비율이 높다(22건, 12.4%). 개념 연구는 철학이나 이론 등에 기대어 논지를 전개하는 연구 방법으로, 선행 연구에 기대어 통일 대비 국어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검토하는 연구,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등의 통일 관련 이념뿐만 아니라 휴머니즘,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 들뢰즈의 차이 철학 등 철학 담론에 기대어 통일 대비 국어교육의 이념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양적 연구는 남북한 교과서의 언어적 특성을 파악하거나 북한이탈주민(학생)의 국어 능력을 진단하는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12건, 6.7%). 교과서의 언어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남북한 국어 교과서에 쓰인 어휘의 종류, 빈도, 분포 등을 계량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학생)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진단 평가를 시행하거나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

7) 질적 내용 분석은 문학이론, 철학, 사회과학이론 등에 기반을 두면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자료의 비교적 작은 언어 단위부터 전체적인 맥락까지 자세하게 분석하며, 둘째,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지속하여 수정 가능한 유연한 분석을 지향하며, 셋째, 자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되 분석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중시한다(최성호·정정훈·정상원, 2016: 132-133).

마지막으로,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 자료를 취합하여 통합하거나 분석 자료에 관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결합하는 혼합 연구는 그 활용 비율이 낮다(5건, 2.8%). 여기에는 『문화어학습』, 『청년문학』 등 북한의 국어교육 관련 잡지를 대상으로 수록된 글의 빈도와 분포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선별된 글의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와 통일 대비 국어교육을 설계하기 위해 관련 수업 사례나 학습자의 설문 자료를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결합하여 분석하는 연구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는 기초 연구를 지향하며 질적 내용 분석을 활용하는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123건, 69.1%).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점은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 중 상당수가 비교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53건, 29.8%). 연구의 초창기에 발표된 “남북한 국어교과서 분석”(전수태, 1989), “남북한 국어교육 연구의 성과와 전망”(박인기, 1995), “남북한의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쓰인 언어 비교 분석 연구”(이주행, 1998) 등 여러 연구가 남북한 국어교육의 비교 분석을 표방했는데, 이러한 비교 연구는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한 흐름을 형성하며 지금까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남북한 국어교육의 비교를 통해 북한 국어교육의 실태와 특성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한편, 남북한 국어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통일 대비 국어교육을 모색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 연구의 선택과 확산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비교 연구의 이러한 활성화가 방법론의 활용 방식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결부되면서 적용의 정교함을 더하고 활용의 다양화로 이어지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남북한 국어교육에 대한 비교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교의 준거를 정교하게 설정하기 시작했으며(정혜승, 2004), 비교의 결과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 그리하여 북한 문학교육의 이질성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남한 문학교육을 성찰하고 문학교육론의 논리를 새롭게 모색하는 등 비교의 방향을 새롭게 설



정하였다(최홍원, 2019ㄷ). 비교 연구에 속하는 논문들의 분석 양상은 다채롭게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비교의 범위를 남북한에서 조선족, 중국, 일본 등으로 확장하거나(곽아람, 2021; 오춘지, 2022; 이관규, 2016; 이향근, 2017), 비교의 짝 자체를 북한과 조선족, 북한과 중국으로 바꿔 비교하는 논의(최홍원, 2019ㄴ; 황규수, 2009) 등은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가 여러 국가의 교육을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비교 교육학의 면모를 갖추는 데 기여한다. 또한, 체제나 국가 단위의 비교에서 벗어나 시기별 북한 교과서를 비교하거나(이경화, 2019; 임옥규, 2012; 홍지선, 2012), 교육과정 실행의 차원에서 북한의 교육강령과 교과서를 비교하는 논의(이민형, 2019) 등 비교의 기준도 다양해지고 있다. 통일 담론 형성의 한 축인 학계에 대한 기대가 ‘독자적인 방법론에 기초한 권위 있는 담론의 산출’이며 그 세부 과제 중 하나가 “비교 가능한 사례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라는 점을 고려한다면(박명규, 2008: 93), 비교 연구의 이러한 정교화와 다양화는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할 만하다.

## 6. 연구 자료

북한에서 산출된 자료 수집의 어려움은 통일연구의 심화와 확산을 제약하는 근본 문제 중 하나이다(박명규, 2008 : 84). 이는 국어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여서, ‘북한 국어교육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미비가 연구의 난제’라는 인식은 연구 초기부터 확인할 수 있다(이상일, 2006: 132-133; 이인제, 2005 : 174; 정혜승, 2004: 233-234; 허재영, 2002: 348). 이러한 점에서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흐름은 자료의 한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하며 연구 지평을 넓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에서 사용된 북한 자료의 유형과 활용 양상을 살피는 것은 유의미하다.

구체적으로, 178편 중 북한 자료를 한 건이라도 연구 자료로 삼은 111

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연구 자료의 종류를 귀납적으로 도출한 후 발행 연  
 대별로 묶어 그 추이를 살폈다. 분석 대상에서 주로 사용된 북한 자료는 남  
 한의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교육강령, 『국어』, 『국어문학』 등 각급 학교의 교  
 과서, 『국어교수법』, 『문학 독본 교수 참고서』 등 국어교육의 이론과 교수 방  
 법을 포함한 교육 지침서, 『문화어학습』, 『인민교육』, 『조선어문』 등 국어교  
 육 관련 잡지, 『사회주의 교육학』, 『주체문학론』, 『조선문학통사』 등의 학술  
 서, 북한의 서정시, 소설, 아동문학 등을 포함한 문학 작품, 『조선말 규범집』  
 등의 어문규범 등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표 11〉 연구 자료별 추이

단위: 개수(%)

	1980	1990	2000	2010	2020	총계
교육강령		4	3	20	9	36(32.4)
교과서	1	7	21	30	19	78(70.3)
교육 지침서		4	6	2	1	13(11.7)
잡지		1	4	7		12(10.8)
학술서		1	5	3	1	10(9.1)
작품			1	5	1	7(6.3)
어문규범		1		1		2(1.8)

이중 교육강령, 교과서는 각각 통일 대비 국어교육의 과제를 모색한 연  
 구(박갑수, 1998), 남북한의 초등국어 교과서를 비교한 연구(전수태, 1989)  
 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된 이래,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초창기부터 꾸

8) 연구 자료의 종류별 총계를 합한 전체 총계는 156건으로 분석 대상인 111편을 넘는다. 이  
 는 분석 대상 1편에서 다루는 연구 자료의 종류가 최소 1종에서 최대 4종으로 복수의 자  
 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준히 채택된 연구 자료이다. 교육강령과 교과서는 북한 국어교육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자료로, 교과서는 분석 대상 중 삼분의 이 이상(70.3%), 교육강령은 삼분의 일 정도(32.4%)에서 연구 자료로 삼을 만큼 활용 비중이 높은 자료이다. 특히 앞서 발행 연도별 연구 추이에서 살핀 것처럼,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과 같은 새로운 교육강령과 교과서의 입수는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를 활성화하는 기폭제로 작용한다.<sup>9)</sup> 게다가 최근 북한 내부적으로 ‘교육강령집행법’(최고인민회의, 2016년)을 제정함으로써 교육강령의 엄격한 준수와 이행을 강조하고 법령으로도 강제하면서 북한 국어교육에서 교육강령과 교과서의 위상은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김지수·김지혜·김희정·김병연·한승대·강호제 외, 2019: 37-41). 이에 따라 교육강령과 교과서는 앞으로도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를 위한 핵심 자료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

학술서, 교육 지침서, 잡지는 북한 국어교육의 철학, 이론, 실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북한 국어교육의 이론을 고찰한 연구(최현섭, 1993), 북한의 화법교육을 살핀 연구(임칠성, 1996) 등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초창기부터 지속하여 채택된 연구 자료이다. 이들 연구는 활용 비중이 10%

---

9) 이는 북한의 교육강령과 교과서의 입수가 오랫동안 원활하지 못한 사정과도 맞물린다. 교육강령의 경우, 북한이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에 소련 군정 아래 ‘북조선교육령시조치요강’을 발표하고 1949년 9월 사회주의 교육 체제의 정착을 목표로 학제 등을 개편한 이래 여러 번 개정하였다. 연구자마다 확인한 교육강령 개정의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968년, 1983년, 1986년, 1992년, 1996년, 2001년, 2013년에 교육강령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이인제, 2005). 하지만 2013년의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을 연구 자료로 입수하여 분석한 연구(강보선 외, 2016) 직전까지 주로 분석된 교육강령은 1983년에 간행된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과정안』과 1984년에 간행된 『고등중학교 국어문학 교수요강』 뿐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교과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하되 학년이 끝나면 회수하여 진급한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가 반납되지 않을 때는 진급이나 졸업에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1980년대에는 북한 교과서를 소장한 중국 내 조선어 교재 편찬 기관에서 자료를 확보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에는 이마저도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소강춘, 2000 : 210).

내외라는 점에서 교육강령과 교과서와 비교하여 그 비중은 작지만, 교육강령과 교과서의 의도를 추론하고 수업으로의 실행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들 자료는 북한 국어교육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연구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이영미, 2010; 임인화·정재찬, 2015; 최영란, 2010).

학술서는 단연 『김일성선집』, 『김일성저작집』, 『김정일선집』 등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를 담은 선집, 『주체사상에 기초한 언어리론』, 『주체문학론』 등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어문학 이론서 등의 활용 비중이 높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최고 통치 이념이며 최고지도자의 교시는 법률을 대체할 만한 사회적 지침으로, 북한 국어교육의 철학이자 그 자체로 중요 교육 내용이다(엄인영, 2019; 홍지선, 2012). 따라서 이들 문헌은 교육강령과 교과서가 견지하는 철학과 이념을 확인하는 한편, 북한 국어교육의 특수성인 ‘사상정서교양’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교육 지침서는 국어교육의 일반론과 각론의 이론을 다룬 자료와 국어 교사의 지도 방향을 제시한 자료로 나뉘는데, 전자에는 『국어 교수법:교원대학용』(1973)과 『문학 교수법』(1963)이 있으며 후자에는 『문학독본교수참고서』(1956), 『국어교수안』(1984), 『국어교수참고서』(2000)가 대표적이다.<sup>10)</sup> 이 중 『국어 교수법:교원대학용』은 ‘해주제2사범대학’과 ‘평양제2사범대학’에서 예비 교사를 위한 국어교육원론으로 집필한 개론서로, ‘제1편 총론’, ‘제2편 글자 교수’, ‘제3편 읽기 교수’, ‘제4편 글짓기 교수’, ‘제5편 글씨 교수’ 등 일반론뿐만 아니라 하위영역별 각론까지 갖추고 있다. 1973년에 출간된 저

10) 『국어 교수법:교원대학용』(1973)은 해주제2사범대학과 평양제2사범대학이 저자로 표기된 국어교육 개론서로, ‘제1편 총론’, ‘제2편 글자 교수’, ‘제3편 읽기 교수’, ‘제4편 글짓기 교수’, ‘제5편 글씨 교수’으로 구성된다. 『국어교수안』(1984)은 안옥규, 리천상 등이 집필에 참여한 교수 지침서로, 교과서와 대응하여 단원별 ‘교수계획’, ‘교수목적’, ‘교수흐름’ 등을 제시하며 단원별 시간 배정, 수업 내용, 수업 운영의 방법 등도 확인할 수 있다(소강춘, 2000).

서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와 주요 내용이 최현섭(1993)에서 처음 다뤄진 이래 최근까지 다수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잡지는 어문학의 이론과 교육을 다룬 자료와 교육 일반 및 교과 교육의 문제를 다룬 자료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문화어학습』, 『어문학론문집』, 『조선어문』, 『조선문학』, 『청년문학』, 『아동문학』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인민교육』, 『교원선전수첩』, 『교원신문』 등이 있다. 전자가 주로 교육강령과 교과서가 담고 있는 북한 어문학의 관점과 이론을 살피는 맥락에서 활용된다면, 후자에서는 북한 교육 및 국어교육에 관한 다양한 필자의 주장과 수업 수기 등이 주로 활용된다. 이중 활용 비중이 가장 큰 잡지는 『문화어학습』이다. 1958년 『말과 글』이라는 제호로 창간되었다가 1968년에 이 제호로 속간된 언어생활 분야의 잡지로, ‘사설’, ‘문학예술과 언어형상’, ‘우리생활과 언어레절’, ‘문화어교육’, ‘우리말지식’, ‘언어생활의 이모저모’, ‘문장감상’ 등의 여러 지면에 수록된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통해 문화어의 보급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sup>11)</sup> 특히 ‘문화어교육’에서는 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 실천과 관련된 여러 글을 지속하여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어문규범과 작품은 다른 자료들에 비해 그 활용 비중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하지만 통일 대비 국어교육 연구의 지평이 일반론에서 영역별 연구로 확장되면서 자료로서의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다. 어문규범은 『조선말 규범집』으로, 1987년과 2010년에 개정된 자료가 박갑수(1998)와 박종관(2016) 등에서 남북한 어문규범을 비교하는 맥락에서 인용되거나 분석되었다. 어문규범은 문법 교육의 내용이자 남북한 언어통합의 대상이라는

---

11) 이러한 지면 구분은 2013년 2호로 발행된 『문화어학습』제253호의 것으로, 그 구성은 조금씩 변화해왔다. 예를 들어, 문화어교육은 원래 ‘학교에서의 조선어교육’으로 시작했다가 ‘학교에서의 문화어교육’ 등을 거쳐 현재의 이름으로 정착하였다. 한편, 이 잡지에 실린 글과 관련하여 최영란(2010)은 속간 이후 1997년까지 『문학어학습』에 수록된 국어교육 관련 글을 정리하여 목록화한 바 있다.

점에서 이러한 비교는 통일 대비 국어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문법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성격을 지닌다. 한편, 작품은 우화, 동화, 아동소설 등 아동문학부터 1990년대의 시와 소설까지 다양한 편인데 이념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작품들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들 작품을 다룬 연구의 목적이 대체로 통일 대비 국어교육을 기획하는 차원에서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제재 유형을 점검하고 선정할 수 있는 제재를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IV. 시사점

지금까지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를 연구 시기, 연구 대상, 연구 영역, 연구 주제,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향후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 시기’ 및 ‘연구 자료’와 관련하여, 2016년을 기점으로 더욱 활성화된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가 그 원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 자료를 새롭게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확보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 시기의 경향을 살펴보면,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원동력 중 하나가 북한 자료의 확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국어교육 자료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함과 동시에,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국내보다 수월한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미 입수된 북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북한 자료 자체에 관한 다양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료 확보의 문제는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가 자주 거론되는 어려움이다. 하지만 연구 자료가 교과서와 교육강령에 편중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북한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거나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문화어학습』, 『어

문학론문집』, 『조선어문』, 『조선문학』, 『청년문학』, 『아동문학』, 『인민교육』, 『교원선전수집』, 『교원신문』 등 북한의 어문학과 교육 분야의 잡지는 북한의 국어교육과 관련된 여러 주제의 다양한 논의와 수업 수기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국어교수방법론:사범대학』(2016), 『국어문학교수방법론:사범대학』(2016) 등 여러 편의 국어교육 지침서가 교육강령과 교과서의 개신(改新) 이후 새롭게 발간되었는데 이를 통해 국어교육에 관한 북한의 최근 시각과 체계화된 교수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북한자료센터는 이들 자료의 최근 간행물까지 확보하고 있으며 검색이 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바 (2011년 구축, 2019년 개편), 북한 자료의 접근 문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다만 이들 자료에서 수록된 글의 제목과 주요 내용은 현 시스템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교육강령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헌의 주요 구성과 목차,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식의 연구가 다른 유형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잡지, 교육 지침서, 학술서 등에서 국어교육과 관련된 서적과 글들을 선별하고 목록화한 후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통시적 경향을 분석하는 논의는 자료 확인 및 선별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으며 연구 주제를 다변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우선,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범위를 학교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초·중등학교급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였으나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연구는 매우 적었다. 그러나 국민 모두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 없이는 남북한 언어통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분단이 장기화되면 남북한 언어도 변화한다. 통일 대비 국어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완성되지 않고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통일 대비 국어교육을 어떻게 체계적,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국어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그들이 겪는 언어 적응의 어려움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국어교육에서도 초·중등학교급의 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국어 능력과 적응 실태를 진단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아직 많지 않고 이들이 겪는 언어 적응의 어려움이 어휘와 화법 중심으로 논의되다 보니 이들이 지닌 다양한 특성까지 연구 과정에서 고려되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는 초·중등교육을 받는 탈북 학생, 고등교육을 받는 탈북 대학생, 성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모두 포함되는 만큼, 이들은 다양한 변인(연령, 학년, 남한 정착 전 교육 받은 정도, 교육 공백 기간, 남한 정착 기간,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국어 능력을 지니며,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국어 능력의 수준과 내용도 다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국어교육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징 및 변인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의 국어 능력을 문법교육(어휘교육), 화법교육 차원에서 주로 논의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들의 국어 능력을 작문교육, 독서교육, 문학교육, 매체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함으로써 이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 대비 국어교육 전문가 양성 연구도 필요하다. 초·중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통일 대비 국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국어 교사의 통일 대비 국어교육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 대비 국어 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보선(2020ㄷ), 박영목·이인제(1998), 이삼형(2015) 등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범대나 교대 등의 교원 양성 기관에서 통일 대비 국어 교사를 어떻게 양성<sup>12)</sup>

12) 윤리교육과에서는 '통일교육론'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복수의 통일 관련 교과목을 전공 선택 과목으로 배정(강보선, 2020ㄷ)하여 예비 윤리 교사의 통일교육 역량을 키워주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할지, 그리고 현직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통일 대비 국어교육 역량을 어떻게 함양시켜 줄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통일 대비 국어교육 전문가는 초·중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 대비 국어교육 강사도 포함된다. 앞서 통일 대비 국어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완성될 수 없다고 했듯이 분단의 장기화를 고려할 때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통일 대비 국어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통일 대비 국어교육을 실시할 강사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sup>13)</sup>

셋째, ‘연구 영역’과 관련하여, 의사소통교육 영역에서 남북한의 비교 및 통합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가 남북의 차이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문학 작품, 문법(어휘, 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교육과 문법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국어교육 차원에서 통일 시대를 총체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통일 관련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북한의 의사소통 방식을 시청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북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과제와 북한의 의사소통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다양화하는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의 의사소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통합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사소통교육 영역에서의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통일 대비 국어교육 연구가 범영역 차원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

13) 국립국어원,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등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또는 남한의 교사를 대상으로 통일 관련 국어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강사를 위한 교육과정, 교재,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통일 관련 단독 성취기준은 문법 영역에서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문법교육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통일 대비 국어교육 연구를 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한 통일 대비 국어교육은 문법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어교육 전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통일 대비 국어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어교육의 전체 차원(목표, 성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에서, 그리고 국어교육의 각 하위 영역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구체적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통일교육 담론과의 연관 속에서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 담론을 확장할 필요도 있다. 통일교육은 승공통일교육, 안보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탈분단교육, 다문화이해·갈등 해결교육, 북한이해교육 등 다양한 담론을 기반으로 기획·실천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일 관련 국어교육은 여러 통일교육 담론 중에서 주로 민족공동체교육과 북한이해교육 담론을 전제로 이루어져 왔다. 통일의 과정과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탈분단교육, 다문화이해·갈등 해결 교육 등 다양한 담론 속에서 통일 관련 국어교육의 논의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통일 관련 국어교육의 연구 방법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는 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질적 내용 분석을 수행한 논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북한의 국어교육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외에도 북한의 국어교육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문헌 자료, 매체 자료, 북한 이탈 주민의 인터뷰 자료 등을 통하여 북한 국어교육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23.01.31. 투고되었으며, 2023.02.12. 심사가 시작되어 2023.03.12.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178편에는 \* 표시를 함)

- \*강보선(2009), 「국어교육에서의 북한 어휘 교육 연구」, 『국어교육연구』 45, 1-34.
- \*강보선(2011),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어휘의 비판적 고찰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2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 『국어교육학연구』 42, 215-240.
- \*강보선(2013 ㄱ),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유형 및 선정 방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7, 125-152.
- \*강보선(2013 ㄴ), 「북한 소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의 언어문화 연구」, 『화법연구』 22, 259-284.
- \*강보선(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일 관련 문법 성취 기준 내용 분석 및 교과서 기술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51(2), 169-192.
- \*강보선(2017),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북한의 어휘교육 내용 고찰」, 『문법교육』 31, 181-212.
- \*강보선(2018), 「북한 초급중학교의 학교문법 내용 분석」, 『국어교육』 161, 119-157.
- \*강보선(2020 ㄱ), 「통일 대비 국어 문법 교재 개발의 쟁점-내용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 『문법교육』 38, 69-98.
- \*강보선(2020 ㄴ), 「통일 과도기 ‘남북한 공통 국어’ 과목의 성격 및 목표」, 『국어교육학연구』 55(1), 5-30.
- \*강보선(2020 ㄷ), 「통일 시대 대비 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선청어문』 47, 109-138.
- \*강보선(2021), 「남북한 공통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의 쟁점—어휘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6(4), 5-41.
- 강보선·변정훈(2016. 10. 15.), 「탈북 대학생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국어교육적 접근」, 한국국어교육학회 제128차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 인하대학교 5호관.
- \*강보선·권순희·주재우·정진석·김진숙(2017), 「남북한 초등학교 문법교육 내용 비교」, 『우리말글』 72, 31-65.
- \*강보선·김진숙·박수련(2016),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국어교육연구』 62, 1-34.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2017), 『남북 생활 용어』, 서울: 한국문화사.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2019), 『남북 생활 용어2』, 서울: 맵씨터.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2020), 『남북 생활 용어1』, 서울: 맵씨터.
- \*고정희·김종철·구본관·조진수·차경미·민병곤·위현실·윤구희·이은정·김호태·문찬란·김진아·심미진(2015), 「남북한 초·중·고등학교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기초 연구 - 통일 대비 단계의 국어과 교수, 학습 내용 선정 및 수업 분석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연구』 36, 1-49.
- \*곽아람(2021), 「남과 북 제일조선인 중등 교과서의 〈흥부전〉 수록 양상 및 특징 비교」, 『한국학

- 연구』 77, 5-39.
- \*구영산(2015), 「북한 국어 교과서의 언어적 특징에 대한 코퍼스 기반 분석 - '경애하는'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 149, 53-80.
- \*권순희(2014ㄱ),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현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0), 561-586.
- \*권순희(2014ㄴ),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와 교육 지원 방향」, 『이화어문논집』 34, 91-123.
- \*권순희(2018), 「2013년 개정 북한 국어 교과서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53(3), 5-47.
- \*권순희·강보선·주재우·정진석(2017), 「남북한 초등학교 듣기·말하기 교육 내용 비교 - 남한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 『한국초등국어교육』 63, 5-27.
- 권이은·이수진·송정윤(2021), 「『질문』에 대한 읽기 교육 연구 동향」, 『독서연구』 58, 109-142.
- \*김남미(2011), 「새터민을 위한 교양국어 수업의 원칙과 방향」, 『교양교육연구』 5(1), 311-337.
- 김라연·최건아·박소희·황인지·장봉기(2021), 「독서의 정의적 영역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분석」, 『독서연구』 61, 43-89.
- \*김문태(2008), 「북한의 고전문학(古典文學) 전통과 국어교과교육(國語教科教育)의 현장」, 『어문연구』 36(2), 423-450.
- \*김미영(2016), 「통일한국에 대한 문학교육의 대응」, 『문학교육학』 53, 9-37.
- \*김미영·유리(2015), 「통일 시대 문학교육의 한 방법, 간문화적 역량을 중심으로 -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 『청람어문교육』 54, 131-159.
- \*김미혜(2009),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본 북한 서정시와 문학교육」, 『국어교육학연구』 34, 175-209.
- \*김부경·김대회(2014), 「개별탈북학생의 쓰기 태도와 쓰기 효능감 양상 연구」, 『작문연구』 21, 125-149.
- \*김부경·김대회(2016), 「쓰기 학습에 대한 북한이탈 중학생의 요구 분석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7(3), 143-169.
- 김상무(2008), 『학교통일교육의 인식론 : 분석과 제언』, 파주: 한국학술정보.
- \*김서형(2018), 「남·북한 초등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지시문의 문장 종결형 연구」, 『코기토(Cogito)』 86, 169-193.
- 김석향(2019), 「1989-2019년 『통일문제연구』 논문 집필진이 분석한 지역과 주제의 변화」, 『통일문제연구』 31(2), 1-37.
- \*김수연(2015), 「북한의 대학 글쓰기 교육의 특징과 통일 글쓰기 수업을 위한 제안」, 『통일인문학』 62, 113-137.
- 김수영·박지은·서현주·서혜선·손희정·신채민·이운재·장보형(2011), 『NECA 체계적문헌고찰 매뉴얼』,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김수영·박동아·서현주·신승수·이수정·이민·장보형·차영주·최인순·박균익(2020), 『의료기술평가방법론: 체계적문헌고찰』,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김양희(2003), 「1980년대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 연구-‘련습’에 나타난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 『국어교육연구』 11, 249-281.
- \*김양희(2004ㄱ), 「80년대 이후 북한의 『국어』 교과서 연구」, 『국어교육연구』 13, 3-34.
- \*김양희(2004ㄴ), 「북한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수령 형상」, 『한국어교육학회』 113, 143-174.
- \*김양희(2005), 「북한의 문학 교육-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시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5, 123-173.
- \*김양희(2006), 「북한의 서사 교육」, 『국어교육연구』 17, 381-426.
- \*김양희(2016), 「2012년 학제 개편 이후 북한 국어 교육의 방향성」, 『국어교육연구』 62, 89-130.
- \*김영란(2013), 「탈북 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도 분석 -2011년 초6, 중3, 고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 『새국어교육』 96, 197-227.
- \*김영애(2020), 「분단소설의 문학교육적 위상과 의미: 2015 개정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융합인문학』 8(1), 73-95.
- \*김윤정(2020), 「남북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드러난 집단 커뮤니케이션 양상」, 『문화와 융합』 42(12), 843-873.
- \*김윤정·권순희(2018), 「남북한 중등학교 읽기 영역의 교육 내용 비교: 남한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개정 국어 교육강령’을 대상으로」, 『문화와 융합』 42(12), 843-873.
- 김은성·김호정·남가영·박재현(2014),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국어 교과서 선정 기준 연구」, 『국어교육연구』 33(4), 391-417.
- \*김은정(2020), 「코리아 문학의 시각과 문학교육」, 『민족문학사연구』 74, 177-228.
- \*김정선(2015), 「국어교육의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연구』 58, 143-170.
- \*김정우(2015), 「북한 중학교 『국어』의 시 교육 내용과 작품에 대한 고찰」, 『語文學』 129, 263-302.
- \*김정은(2018),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국어 문법 학습 어휘의 선정에 관한 연구 -중학교 국어 ‘돋움 교과서’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연구』 41, 1-35.
- \*김중신(2014), 「통일 시대 어문 교육의 방향」, 『국어국문학』 168, 93-121.
- 김지수·김지혜·김희정·김병연·한승대·강호제·김선·조정래(2019), 『김정은 시대 북한 유·초·중등 교육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호(2017), 「통일 한국의 국어교과서 제재로서 북한 아동문학 고찰 - 우화, 동화, 아동소설을 대상으로 -」, 『청람어문교육』 61, 267-289.
- \*김태호(2020), 「북한 국어교육에 대한 탈북국어교사의 인식」, 『한국초등국어교육』 68, 35-55.
- \*김태호(2022), 「통일시대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의 쟁점 및 방향」, 『청람어문교육』 85, 7-26.
- \*김태호·신현재(2022), 「통일시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의 성과와 과제」, 『새국어교육』 130, 67-87.
- 김혜인(2016), 「국어교육, 어떤 텍스트로 가르칠 것인가」, 『한국어문교육』 19, 193-220.

- 김혜연(2017), 「협동 글쓰기의 국내의 연구 동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작문연구』 34, 7-49.
- 김혜연(2022), 「작문 유형화 연구의 국제 동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새국어교육』 132, 211-247.
- \*김혜윤·한정범·조연주(2019),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교육과정 기초 설계를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 『새국어교육』 118, 165-191.
- \*김혜정(2013),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그 극복을 위한 교육 방안 : 북한의 광고와 뉴스 담화의 화용적 분석을 토대로」, 『한말연구』 33, 173-163.
- \*김희진(1996), 「남북한의 외래어 수용 양상: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53, 197-231.
- \*남경우(2017), 「문학치료를 통한 초등학생 통일교육 사례 연구-극본 <들판에서>의 감상과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42, 297-337.
- \*문금현(2007),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76, 141-172.
- \*문무영·김태훈(2001), 「개편된 북한(北韓) 국어(國語) 교과서(教科書)의 체제와 내용 -고등중학교(高等中學校) 1~3학년(學年) 교과서(教科書)를 중심으로 -」, 『어문연구』 29(3), 260-283.
- \*민병곤(1999), 「북한 고등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서 어휘의 계량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9(1), 455-500.
- \*민현식(2015), 「남북통일과 국제화 시대의 소통과 통합의 한국어를 위하여」, 『한국민족문화』 57, 397-409.
- \*박갑수(1998),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의 현황과 대책」, 『국어교육연구』 5, 61-73.
- \*박금숙(2016), 「남북한 초등 국어교과서 수록 전래동화 비교 연구」, 『통화와 번역』 31, 83-108.
- \*박기범(2019),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문학교육의 특성」, 『한국문학논총』 81, 55-89.
- \*박기범(2020), 「고급중학교 『국어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문학교육의 특성 -현대소설/영화 단원을 중심으로 -」, 『국어문학』 73, 353-395.
- 박명규(2008), 「통일논의와 통일연구의 현주소 : 담론의 산출과 학계의 역할」, 『동아시아 : 비교와 전망』 6(3), 79-95.
- \*박소은(2020),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존경 표현' 교육 내용 연구」, 『청람어문교육』 75, 183-212.
- \*박소은(2021), 「북한 국어 교과서의 '생동한 표현' 연구」, 『韓民族語文學』 94, 107-142.
- \*박영목·이인제(1998),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15(1), 269-293.
- 박유현·이인화(2022), 「서사 텍스트 난도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분석」, 『독서연구』 62, 93-140.
- \*박인기(1995), 「남북한 국어교육 연구의 성과와 전망」, 『국어국문학』 115, 425-438.
- \*박종관(2016), 「남북한 맞춤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맞춤법 교수·학습 내용 연구」, 『국어국문

- 학』 175, 5-30.
- \*방은수(2021), 「탈북 소재 아동문학 작품의 교육적 수용 방향」, 『한국초등국어교육』 71, 115-132.
- \*배준영(201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 실태와 교육 방안 연구-대구지역 정착민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언어학회』 58, 105-132.
- \*백목원·권순희(2016), 「북한 이탈 고등학생의 국어 능력 진단 평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 753-781.
- \*백목원·변경가·정경화·권순희(2016), 「초·중·고 북한 이탈 학생의 쓰기 양상 분석」, 『국어교육연구』 62, 197-242.
- 백정예(2021), 「국어과 모의 수업 시연 과제 설계 동향 분석」, 『국어교육연구』 48, 179-217.
- \*변경가·권순희(2019), 「북한 고급중학교『국어문학』에 수록된 제재 양상 및 특징-김정은 시대의 2013 교육강령 및 교과서를 대상으로-」, 『우리말연구』 56, 211-239.
- \*변영수(2022), 「《겨레말큰사전》과 통일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73, 53-74.
- \*서현석(2016), 「남북한 통합을 위한 국어 교육의 정체성 탐구」, 『국어문학』 63, 415-443.
- \*소강춘(2000), 「북한의 국어교육 실태 연구」, 『국어교육』 103, 209-244.
- \*심영택(2000), 「통일 대비 국어 교육 연구」, 『論文集』 37, 97-128.
- 안상희(2020), 「대학의 계열별 글쓰기 교육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한국어문교육』 30, 69-96.
- \*안한나(2018), 「북한이탈주민의 언어교육 현황 및 외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연구」, 『통일교육연구』 15(1), 23-44.
- 양영철(2018), 『남북한 언어 탐구생활』, 서울: 지식의숲.
- \*양정임(2018), 「통일시대 준비교육을 위한 문학작품 도입과 활용방안」, 『석당논총』 70, 249-286.
- \*엄인영(2019), 「북한 국어, 문학 교과서의 주체사상 교양 교육의 내용 요소 탐구」, 『문학교육학』 62, 177-219.
- \*엄인영(2020), 「북한 국어 교과서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원췌'의식화 교육 내용분석」, 『국어교육연구』 55(1), 107-154.
- \*엄인영·서현정·권순희(2021), 「남한 주민을 위한 북한어 어휘 교재 개발」, 『청람어문교육』 80, 413-459.
- \*오영창(2021), 「문학능력을 고려한 탈북청소년 평가의 방향-상호문화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7, 135-162.
- \*오춘지(2022), 「〈관동별곡〉의 국어 교과서 수록 양상 비교-남한·북한·중국 조선족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39, 249-278.
- \*오현아(2019), 「통일 대비 남북 교과 전문 용어 비교 분석 연구에 대한 시론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82, 59-96.
- \*오현아(2020), 「강원도 내 탈북 청소년 학습자의 문식성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0), 255-280.

- \*오현아(2021), 「상호 문화 문식성 관점의 통일시대 초등국어교육의 방향 탐색—이북 소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제재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56(1), 111-149.
- \*오현아·김지혜(2019-), 「탈북 대학생의 언어 문식성 양상 분석 연구를 위한 시론」, 『새국어교육』 120, 61-96.
- \*오현아·김지혜(2019-), 「탈북 대학생의 언어 문식성 양상에 대한 질적 탐색 - 학습 생애사적 접근의 내러티브 인터뷰와 질적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연구』 71, 165-202.
- \*우인혜(2018), 「북한이탈주민 교재 보완을 위한 남북한 언어 비교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교육』 49, 111-141.
- \*원진숙(2015), 「탈북학생 대상 중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 방안」, 『국어교육연구』 50(2), 232-267.
- \*유성호(2006), 「문학 교육과 통일 교육: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현대소설을 중심으로」, 『논문집』 5, 31-43.
- \*윤희원(1999), 「북한 지역 국어교육의 현황」, 『선청어문』 27(1), 211-225.
- 윤희원·박갑수·박영목·이주행·한철우·민병곤·이영숙(1997), 「남북한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통일대비 국어과 교육 과정 연구위원회.
- \*이경화(2019), 「북한 중등 교과서의 현대시 제재 수록 양상 고찰」, 『문학교육학』 62, 221-257.
- \*이경화·김정우(2021), 「북한의 시 교육 연구-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교과서의 작품과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73, 223-255.
- \*이관규(1999), 「북한 학교 문법의 체계와 내용」, 『화법연구』 1, 371-438.
- \*이관규(2016),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 비교 연구」, 『국어교육연구』 51(3), 155-183.
- \*이관규(2021), 「북한의 교육 제도에 따른 국어 교육 변화 양상」, 『한국어문교육』 35, 7-30.
- \*이관규(2022), 「남북한 국어과 교육과정의 비교 및 논점 - 남한의 교육과정(2015)과 북한의 교육강령(2013)을 중심으로」, 『한글』 335, 67-98.
- \*이규범(2022), 「남북한 교과서로 본 말소리 교육 비교」, 『한국어문교육』 40, 137-157.
- \*이동배(2009), 「해방 후 시기의 남북한 초등국어 교과서 비교연구」, 『새국어교육』 83, 337-356.
- \*이동일(2020), 「통일 시대 통합고전문학 교육 방향과 텍스트 선정 -17세기 전란 소재 소설 <최척전>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30, 419-457.
- \*이루리(2020), 「남북 통합 교육 제제로서 고려속요의 유의미성」, 『국어교육연구』 45, 45-74.
- \*이민형(2019), 「북한 초급중학교 교수요강과 교과서 비교 분석 -듣기·말하기 영역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44, 31-80.
- \*이삼형(2015), 「광복 70년 국어교육의 응전과 통일 시대의 과제」, 『국어국문학』 173, 49-75.
- \*이상일(2006), 「북한 교과서의 고전문학 작품 선정 원칙과 수록 체제 - 고등중학교 『국어』, 『문학』을 중심으로 -」, 『고전문학과 교육』 12, 132-158.
- \*이상일(2020), 「‘남북한 공통국어’ 교육 내용 선정의 쟁점과 과제 -중등 문학교육을 중심으로-



- 로, 『국어교육연구』 55(3), 251-281.
- \*이성연(2007), 「남,북한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어휘 분포」, 『새국어교육』 77, 553-584.
- \*이성연·정옥란(2006), 「북한 고등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어휘 연구」, 『새국어교육』 77, 553-584.
- \*이성우·신중진(2021),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개념 통합을 위한 쟁점과 방향」, 『동아시아 문화연구』 86, 85-105.
- \*이영미(2006), 「북한 아동문학과 교육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0, 225-259.
- \*이영미(2007ㄱ), 「북한 문학교육의 내적 동학」, 『現代文學理論研究』 30, 27-52.
- \*이영미(2007ㄴ), 「북한 문학교육의 동향 고찰」, 『문학교육학』 22, 181-202.
- \*이영미(2010ㄱ), 「1960년대 북한 문학교육의 일동향 - 아동문학교육교양장의 변동기적 위상을 중심으로 -」, 『문학교육학』 31, 87-117.
- \*이영미(2010ㄴ), 「1960년대 전반기 북한 문학교육교양 매체 『아동문학』의 주제적 경향」, 『한민족문화연구』 33, 343-376.
- \*이영미(2012), 「북한 문학교육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국제연구사적 문제제기」, 『국제어문』 54, 463-502.
- \*이영미(2014), 「현대소설교육에서의 또 하나의 다문화성: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 문학정체성의 의미화와 관련하여」, 『평화학연구』 15(1), 73-92.
- \*이은주·이순영(2021), 「탈북청소년의 국어학습 관련 연구의 성과와 한계」, 『한국어문교육』 35, 85-116.
- \*이인제(2005), 「통일 한국의 국어 교육과 교육 과정 통합의 방향」, 『국어교육』 117, 173-228.
- \*이인제·민병곤·이재기(2002), 「북한의 읽기 교육 현황 분석 -교수 요강 및 교과서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7, 203-241.
- 이인제·최미숙·송현정·이재기·민병곤·박삼서(2000), 「남북한 초·중등 국어과 교육 과정 및 교과서 통합 방안 연구」,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인화·정진석(2014), 「A Reflection on the Education of Acceptance of Novels through Systemical Review」, 『국어교육학연구』 49(4), 219-252.
- \*이주섭(2000), 「북한 인민학교의 말하기 교육에 대한 분석: 『인민학교 국어』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22(1), 87-107.
- \*이주형(1998), 「남북한의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쓰인 언어 비교 분석 연구」, 『국어교육』 98, 177-214.
- \*이창희(2021), 「북한의 고전문학교육」, 『한국어문교육』 35, 55-84.
- \*이향근(2017), 「남한·북한·연변의 기초 문식성 교육 내용 비교」, 『한국초등교육』 28(1), 187-205.
- \*이향근(2018), 「북한 김정은 체제의 소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과 수록 제재의 특성 분석」, 『교육연구』 73, 23-41.
- \*임상수(2020), 「남북한 어문규범 통합의 지향점과 학교 통일교육」,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6(6), 577-596.

- \*임옥규(2012), 「북한 교과서 개편에 따른 문학교육 양상 - 김정일 시대를 중심으로」, 『한국문  
화기술』 13, 149-178.
- \*임인화(2016), 「통일문학교육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연구」, 『문학교육학』 52,  
193-222.
- \*임인화(2019), 「통일문학교육제대로서 '북방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 70, 199-231.
- \*임인화(2021), 「통일문학교육 제대로서 디아스포라 문학 역할 연구」, 『우리말글』 90, 149-190.
- \*임인화·정재찬(2015), 「북한 문학교육의 사회교육적 양상에 관한 연구」, 『우리말글』 65, 265-  
292.
- \*임철성(1996), 「북한의 화법 교육 연구」, 『새국어교육』 53(1), 109-142.
- \*임현열(2014),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글쓰기 교육 연구」, 서울: 통일부.
- \*장지혜(2016), 「타자성과 정체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 통일 시대 국어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55, 107-130.
- \*전수태(1989), 「남북한 국어교과서 분석: 「초등 최종학년의 경우」를 중심」, 『새국어교육』 45(1),  
23-44
- \*전수태(2010), 「남북통일시대의 국어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31, 1-23.
- 전영선(2015), 「북한의 언어: 소통과 불통 사이의 남북 언어」, 광명: 경진.
- \*전은진·신중진(2017),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 -문학 용어를 중심으로-」, 『동  
아시아 문화연구』 71, 13-31.
- \*정경화·권순희(2016), 「북한 이탈 초등학생의 국어 능력 진단 평가 분석」, 『한국초등국어교육』  
61, 381-421.
- \*정경화·권순희(2019),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언어 규범 교육 내용 분석」,  
『국어교육연구』 54(2), 115-151.
- \*정재림(2021), 「북한 고급중학교 현대문학교육의 성격과 특징」, 『한국어문교육』 35, 31-54.
- 정종남(2001), 「남한 주민이 알아야 할 북한 어휘 2000개」, 서울: 종로서적.
- \*정주리(1997), 「북한의 국어와 국어 교육」, 『한국어학』 6, 99-116.
- \*정진석(2018), 「북한의 2013 개정 교육강령에 나타난 북한 문학교육의 내용 분석」, 『국어교육  
연구』 68, 145-174.
- \*정진석·강보선·주재우·권순희(2017), 「Comparison of the Reading Content of Elementary  
School Curricula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cusing on the 2015 Re-  
vised Korean Curriculum of South Korea and the 2013 Revised Korean Curriculum  
of North Korea」, 『교과교육학연구』 21(3), 197-205.
- \*정혜승(2004), 「남북한 국어지식 교육 비교 연구」, 『국어국문학』 137, 233-268.
- \*정혜현(2020), 「남북한의 한글 자모 교육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학술발  
표논문집』 2020, 29-47.
- \*정혜현·진용성(2021), 「남한의 초등학교와 북한의 소학교 국어 교과서 어휘의 계량적 비교 연  
구」, 『한국어문교육』 34, 117-154.
- \*조경덕(2013), 「대학 교양 교육으로서 남북한 소설 읽기와 글쓰기 — 은희경의 「빈처」와 정현

- 철의 「삶의 향기」를 중심으로, 『국어어문』 57, 467-490.
- \*조규익(2017), 「북한 교과서 ‘고전시가 해석’의 한 양상」, 『한국문학과 예술』 21, 395-435.
- \*주재우(2015), 「통일 이후 고전문학 교육과정 개발 방향」, 『어문학』 127, 231-254.
- \*주재우(2018-1), 「김정은시대의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교과서 분석」, 『독서연구』 48, 133-163.
- \*주재우(2018-2), 「북한 초급중학교 쓰기교육 내용 분석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작문연구』 38, 173-200.
- \*주재우·권순희·강보선·정진석(2017), 「남북한 초등학교 쓰기교육 내용 비교 -남한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작문연구』 33, 35-56.
- \*진선희(2016), 「남북한 국어과 교과서 전래동요 수록 양상 및 공통 유형 탐색」, 『새국어교육』 109, 351-387.
- \*진선희(2019), 「통일국가시대 초등 국어과 제재로서 일제강점기 전래동화 연구」, 『아동청소년 문학연구』 25, 407-455.
- \*진선희(2020), 「‘남북한 공통국어’ 교육 내용 선정의 쟁점과 과제 - 초등 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55(1), 237-264.
- 진용성(2018), 「초등국어교육의 ‘시 교육’에 관한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어문교육』 24, 407-441.
- \*진용성·김병수(2020), 「통일시대 『우리말 터』 초등국어교과서 단원 개발」, 『한국어문교육』 33, 129-153.
- \*진용성·김병수(2022), 「통일초등국어교육 콘텐츠 탐색 연구」, 『한국어문교육』 38, 7-34.
- \*진용성·차해나(2018), 「북한 소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2013)와 남한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2017)의 비교 연구」, 『청람어문교육』 66, 59-83.
- 천경록(2014), 「국어교육 연구 방법의 유형과 쟁점」, 『국어교육학연구』 49(2), 113-140.
- \*최미숙(2020), 「‘남북한 공통국어’ 과목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방향」, 『국어교육연구』 55(1), 293-321.
- 최성호·정정훈·정상원(2016), 「질적 내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2(1), 127-155.
- \*최영란(2010), 「『문화어학습』으로 본 북한의 문법 교육」, 『국어교육연구』 25, 229-269.
- \*최영란(2016), 「『국어 문법』으로 본 북한의 문법 교육」, 『어문학보』 36, 81-110.
- \*최창현(2019), 「남한 『문학』과 북한 『국어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문학 작품의 비교 연구」, 『구보학보』 23, 611-640.
- \*최창현(2022), 「남한 『국어』와 북한 『국어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고전문학 교육의 양상과 재생산 - 「춘향전」과 「관동별곡」을 중심으로 -」, 『강원문화연구』 45, 125-149.
- \*최현섭(1993), 「북한 국어교육 이론 고찰 - [국어 교수법] 분석을 중심으로 -」, 『한글』 222, 115-150.
- \*최현섭(1999), 「통일 대비 국어교육 정책」, 『선청어문』 27(1), 161-181.
- 최현섭·이인제·최영환(1996),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인천: 인천교육대학교 통일대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 \*최홍원(2013), 「북한의 고전문학 교육 내용 연구-교과서 수록 작품의 선정 배경과 맥락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5, 53-93.
- \*최홍원(2019ㄱ), 「동질성과 이질성의 길항과 통일 문학교육의 도정」, 『문학교육학』 62, 41-87.
- \*최홍원(2019ㄴ), 「북한 국어교육의 외연적 맥락과 내포적 의미의 탐색 — 중국 어문교육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54(3), 315-362.
- \*최홍원(2019ㄷ), 「북한 문학교육을 통한 문학교육론의 투시와 성찰 - 북한의 2013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중심으로 -」, 『문학교육학』 64, 343-384.
- 통일교육원(2021),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서울: 통일교육원.
- 통일연구원(2015),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 \*하재현(2021), 「대학생의 통일인식 조사를 통해 본 통일 문학교육의 한 방안」, 『사회적질연구』 5(2), 53-72.
- \*한규석(2006), 「남북한 고전문학교육의 비교 연구」, 『한어문교육』 16, 87-116.
- \*한명숙(2016), 「다문화시대의 한국어 통일과 국어교육의 과제: ‘한국어사회’와 ‘한국어 공동체’의 개념 수립을 기반으로」, 『청람어문교육』 60, 215-237.
- \*한명숙(2017), 「통일시대 초등학교 교과서의 명칭과 분책 방안」, 『새국어교육』 111, 33-59.
- \*한명숙(2020), 「통일시대의 한반도 지역어와 한국어 다양체의 교육적 시사점」, 『한국어문교육』 30, 155-181.
- 한성우·설송아(2019), 『문화어 수업』, 서울: 어크로스.
- 함택영·구갑우·김용복·이향규(2003), 「남북한 평화체제의 건설과 통일교육」, 『국가전략』 9(4), 33-60.
- \*허재영(2002), 「북한 고등중학교 1학년 『국어』의 체제와 내용」, 『한말연구』 11, 347-379.
- \*허재영(2007), 「북한의 문법 교육 - 고등중학교 <국어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법 교육』 7, 291-308.
- \*홍경화(2014), 「『남북한 언어』 관련 내용의 국어 교과서 구현 양상의 문제점」, 『우리말글』 62, 159-186.
- 홍석률(2021), 「학계의 통일담론」, 통일교육원 편,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서울: 통일교육원, 207-264.
- \*홍중선(2009), 「중등학교 국어 과목에서의 북한어 교육」, 『한어문교육』 21, 35-59.
- \*홍지선(2012), 「북한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연구 - 『국어문학』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의 비교를 중심으로 -」, 『문학교육학』 38, 433-466.
- \*황규수(2009), 「북한 고중 『국어』 및 『문학』과 중국 조선족 『조선어문』 수록 시의 비교 고찰」, 『새국어교육』 82, 721-744.

##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정진석 · 강보선

이 연구는 국어교육에서 통일교육 문제를 다룬 일체의 연구를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로 개념화하면서, 체계적 문헌 고찰에 기대어 4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178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시기, 연구 대상, 연구 영역,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자료의 차원에서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는 국외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가 필수적이다. 둘째, 이미 입수된 북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북한 자료 자체에 관한 다양한 문헌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범위를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국어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통일 대비 국어교육 전문가 양성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의사소통교육 영역에서 남북한의 비교 및 통합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남한의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통일 대비 국어교육 연구가 범영역 차원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통일교육 담론과의 연관 속에서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 담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연구 방법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어** 통일, 통일 담론, 국어교육, 통일 관련 국어교육, 체계적 문헌 고찰

##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the Research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lated to Unification

Jeong Jinseok · Kang Bosun

This study conceptualized all research on unification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Korean language education related to unification'; the work comprehensively analyzed 178 papers extracted from four databases in terms of research period, subject, area, topic, method, and resources depending on the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Moreover based on this analysis, implications for follow-up research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joint research with foreign researchers is essential.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already available North Korean data, it is necessary to conduct various literature studies on North Korean data itself.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research from school education to lifelong education. Fourth, there is a need to study customized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Fifth,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on how to train expert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Sixth, comparative and integrated research contrasting the two Koreas needs to be more active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education. Seventh, research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textbooks in South Korea needs to be conducted at the overall sub-area level. Eighth,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discourse of research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lated to unification in connection with the discourse of unification education. Ninth, efforts to diversify research methods are required.

**KEYWORDS** Unification, Unification Discourse,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lated to Unification, Systematic Literature Review